

어깨동무

1b Y01.08(연말호)
전북지방본부 메모리



9월 Good Morning Day

북전주지부에서 이동지방본부까지 병행



전북지방본부(위원장 김덕경)는 9월20일(금) 북전주 지부에서 2019년 일곱번째 Good morning 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는 이동 지방본부를 병행하여 북전주 지부 조합원과 함께하는 일일 지방본부를 운영하였다. 행사에는 북전주지부장(임정택)과 최성숙 신임 여성 부장을 비롯한 북전주지부 집행간부와 전북유선운용센터지부장(김형선)과 최종현 집행위원도 함께 참석하였다.



김덕경 위원장은 출근하는 조합원과 밝은 얼굴로 인

사를 나누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라고 격려하였고 통합사무실을 찾아 오늘은 이동지방본부를 겸한 행사로 퇴근시간까지 북전주 조합원과 함께 할 생각이니 현장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하였다.



또한 같은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북유선운용센터를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행사 취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아침 간담회를 마친 김덕경 위원장은 케이블 포설 작업 현장을 찾아 오전 일과를 함께 하였고 오찬을 겸한

간담회도 추진하였다. 오후 일정으로는 본국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북전주지점 진안지역에 전주건설작업을 하고 있는 현장 조합원을 찾아 애로사항 청취 및 동행체험을 실시하였다.

북전주지점은 신·구 조화를 잘 이뤄 선배와 후배들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일일 이동 지방본부를 마무리한 김덕경 위원장은 저녁 간담회로 북전주지부장(임정택)을 도와 지부를 잘 이끌어 주고 있는 지부 집행위원과 함께하였다. 이 자리에서 북전주지부 신임 여성부장(서리)인 최성숙 부장은 항상 조합원을 위해 현장 활동에 매진하는 김덕경 위원장을 위해 운동화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한편, 10월 Good morning Day 행사는 시즌 8번째로 **익산지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전주지사 추계 체육행사 배웅...



10월10일 전주지사 근무자 추계 체육행사를 시작으로 전북지역 추계 체육행사가 시작되었다.

김덕경 위원장은 전주지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가 제주도 한라산 등반 일정으로 저녁에 출발하는 조합원을 만나 안전하게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라며 인사하고 격려했다.



이날 추계 체육행사에 참석한 전주지사 임직원 모든 인원이 한라산 정상을 올라 단합된 전주지사의 힘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국사지킴이』 현장의견 수렴



KT 노동조합은 10월14일(월) 넷분야 국사지킴이 시범서비스에 따른 조합원 현장의견 수렴을 전북유선운용센터에서 진행 하였다.

이날 의견수렴에는 중앙본부 정책1국장 유대종, 넷협력팀장 양태준 그리고 전북유선운용센터 조합원이 참석 했다. 전북지역은 북전주청사에 전북유선운용센터 조합원들이 주·야간으로 나누어 근무를 하고 있다. KT노동조합은 17일까지 전국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조합원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ICT역량 페스티벌 대전에서 열려



10월23일(수) 2019년 ICT역량페스티벌이 대전 KT대덕 제1연구센터에서 진행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선로설계 정진채차장 ◆광케이블 구축 김범, 염승원, 육근웅, 김성민과장 ◆Biz개통 최병찬, 이호영, 이진국과장이 출전하였다.



또한, 김덕경 전북위원장은 전북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조합원을 찾아 격려와 응원에 박수를 보냈다. 전북 출전선수는 **단체혁신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전북고객본부 CS담당 서해승 선로시설팀장은 드론을 이용해 케이블 가설 작업 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장시간 전주에서 등주 작업 시 피로도를 낮춰주는 발판을 자체 제작하여 참석한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전국 조합간부 워크숍 개최



KT노동조합은 10월24~25일 전국 조합간부 워크숍을 지리산수련관에서 실시하였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한 전국에서 모인 조합간부는 족구, 탁구, 볼링 등 기량을 겨루고 지방본부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체육행사 일정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열린 노동문화제 행사에서는 총12명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으나 전북 강은 석 홍보국장의 문턱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노동문화제



강은석 홍보국장은 최우수상을 차지해 차원이 다른 기량을 자랑하였다.

익산지부 통합리텐션팀 찾아



10월28일 김덕경 위원장은 익산지사 통합리텐션팀을 방문해 조합원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현안 사항 등 다수의 질의 응답이 있었다. 김덕경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고객들과 통화하면서 각종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리텐션팀 근무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위원장으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한편 익산지사 통합리텐션팀은 서로 화합하고 동료간 이해하려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익산지사 통합리텐션팀



전국 여성조합간부 역량강화 교육



KT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7일(목) KT도고수련관에서 “2019년 전국 여성조합간부 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노동조합의 여성 참여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 내용은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KT 노동조합의 활동방향 ▲ 노동가요 및 율동 배우기 등의 강의와 ▲ 조별 소통의 시간 ▲ 김해관 위원장과 의 대화시간 ▲ 각 지방본부 단합의 장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세이브 더 칠드런 (Save The Children) 의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도 진행되었다.

우리 전북지방본부는 임숙경 여성국장을 비롯하여 이지영, 조은정, 강경옥, 최성숙, 김명남, 장선득 여성부장 7명이 참여하였다.

전주지부 CM2팀 단합대회 초청



2019년 11월 13일(수) 김덕경 전북위원장은 전주지부 CM2팀에서 주관하는 단합대회에 초청되어 방문을 하였다. 초청된 자리에서 김덕경위원장은 “항상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 조합원들 한테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 마음 변함없이 항상 조합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전북위원장(김덕경)은 CM2팀 조합원들과 저녁 시간을 알차고 즐겁게 보냈다.



전주지사 CM2팀 조합원들과 술 한잔 기울이며 나서는 길에 조합원들과 한 컷... 전주지사 CM2팀은 송상의 실장과 윤기성 지부장의 호응이 잘 맞아 정기.비정기적인 단합행사를 추진해 조합원 상호간 신뢰감을 더해가고 있다.

전주권역 지부장 회의 개최



2019년 11월 18일(월) 전주권역 지부장회의가 북전주 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권역회의에는 김덕경 전북위원장, 윤기성 전주지부장, 임정택 북전주 지부장, 진홍윤 남원지부장, 김형선 전북유선운용센터 지부장, 박호남 전북고객본부 지부장이 함께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 하였다.

회의 안건으로 ▷ JEONBUK MOVIE DAY 관련 아쉬운 점 ▷ 전주Biz지원2팀 사무실 이전 ▷ 남원지부 사위장 바닥 난방 ▷ 직원들간의 호칭 ▷ 무중력의자(비치의자)지부실 배치 등 각 지부에서 일어나는 현안 사항들을 논의 하였다.



2019년 JEONBUK MOVIE DAY

네트워크 관련 조합원 한자리에



2019년 11월 15일(금)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는 “2019 JEONBUK MOVIE DAY” 행사를 작년(2018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하였다.

김덕경 전북위원장은 작년에는 조합원 가족들과 함께하는 FAMILY MOVIE DAY를 진행 하였으나 올해는 기술직 조합원들만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북지역 네트워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이 함께하는 MOVIE DAY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본 행사에는 참석하신 내외 귀빈께서 준비한 행운에 선물을 30여 점 준비하여 조합원에게 선물로 증정되었다.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해주신 최장복 조직실장은 김덕경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전북지방본부가 하나로 움직여 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본 행사에는 중앙본부 최장복 실장과 박용만 전북고객본부장, 김태균 호남네트워크본부장, Biz담당 김성일 상무 등 조합원을 포함 총 200여명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전북지방본부 김덕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내년 2020년은 상반기 마무리 하고 영업과 기획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JEONBUK MOVIE DAY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여 내년 2020년을 기대해 본다.

지방 소식

어깨동무 하나된 전북!!



편집·발행: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2019년 JEONBUK MOVIE DAY

현장 스케치...



편집·발행: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2019년 JEONBUK MOVIE DAY

현장 스케치...





편집·발행: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전북고객본부지부 Good Morning Day



2019년 11월 20일(수) 김덕경 전북위원장은 전북고객본부지부 Good Morning Day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호남 전북고객본부지부장, 임숙경 여성국장, 최희천 지원부장, 이지영 여성부장, 문용선 집행위원이 이른 아침부터 행사에 참여 하였다.



또한, 김덕경 전북위원장은 각 사무실을 순회하며 “ 이제 2019년도 한달 여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우니 건강 유념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전북고객본부지부를 끝으로 2019년 Good Morning Day 행사 9개 지부가 잘 마무리 되었다. 2019년 Good Morning Day 행사에 참여해 주신 지부 조합간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편집·발행: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노.사가 함께하는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와 KT전북고객본부는 11월27일(수) 전북아동지역센터 등 어렵고 소외된 지역민을 위해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전북고객본부 15층 구내식당에서 전북고객본부 임직원과 행복한가게 봉사단 등 총50여명이 참여하여 총 1,700kg의 김장을 담그고, 이를 전북아동센터, 보육원, 장애인학교, 미혼모학교, 조손.결손.장애인 가정 등 총 130개소에 골고루 기증하였다.

조합원과 함께하는 문화제



KT노동조합은 각 지방본부 1개 지부를 선정하여 특색에 맞는 문화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지방본부도 전북고객본부 “응답하라 명작영화 동호회”에서 신청한 건이 채택되어 11월27일(수) 전북고객본부 조합원 등 약6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북고객본부 응답하라 명작영화 동호회 회원 및 고객본부 조합원은 전주 롯데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 후 본부 앞 전주가맥 명소 “후켄”으로 자리를 이동해 호프미팅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앙본부 박충범 산업안전국장도 함께하여 행사 취지를 설명하고 간담회를 진행 하였다

연말 지사.지점 현장순회 실시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 김덕경 위원장은 11월29일 부터 12월 9일까지 연말을 맞아 지사.점을 순회 방문하여 지난 1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조합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도 조합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하였다.



4/4분기 지방노사협의회 개최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김덕경 전북위원장)와 KT전북고객본부(본부장 박용만)는 12월4일 전북고객본부 4층 영상회의실에서 4/4 분기 정기 지방노사협의회를 개최 하였다.

지방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회의자료는 각 지부실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이 열람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전북지방본부 조합간부회의 개최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는 2019년을 평가하는 조합간부 회의를 12월9일 정읍지부에서 개최하였다. 김덕경 위원장은 “한해 지방본부를 믿고 따라와 준 각 지부 조합간부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2019년 우수지부를 선정해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지부에는 김제지부(지부장 정광모)가 수상하였다. 시상에 앞서 김덕경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전북 지부장님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하기도 하였다.

주요 복지제도 설명

자기계발비, 장기근속(안식년 휴가, 장기근속 보로금)

자기계발비 (본인신청)

- > 내용: 직원 자기계발을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
 - > 지급대상: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전문경력직, 재직전출자 포함)
 - > 사용방법: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 사용 후 지급(사외교육, 학원, 자격취득, 도서구입, 체력단련, 기타 등)
 - > 지원금액: 매년 1인당 50만원
(매년 1.1 ~ 12.20 사용한정, 당해 년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 지급방법: 월2회 지급
년간 한도 금액에서 1회 또는 여러 번 신청가능
매월 1일 ~ 15일 승인된 금액은 25일 지급, 16일 ~ 말일까지 승인된 금액은 익월 10일 지급
(단, 12월 사용분은 12월 말 지급)
 - > 신청방법: 자기계발에 사용된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
- ERP > HR > 개인업무 > 복지후생 > 신청 > 자기계발비 메뉴에서 입력
- 신청서 출력 후 영수증 확인 후 소속 팀장에게 승인 (ERP)

- ✓ 영수증 원본 개별 보관
- ✓ 지급 후 거래취소 등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처분
- ✓ 년도 중도 입사자도 전액 지원

안식년 휴가 (본인신청)

- > 내용: 장기근속자 휴식부여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
- > 대상: 근속 10년, 20년, 30년 도래 시점의 직원
- > 시기: 만 10, 20, 30년 도래 후 만 1년 이내 신청 및 사용
- > 사용기준:
 - 근속 10년 (총 2주)
 - 안식년 휴가부여일 5일, 본인연차사용 5일
 - 근속 20년 (총 3주)
 - 안식년 휴가부여일 8일, 본인연차사용 7일
 - 근속 30년 (총 3주)
 - 안식년 휴가부여일 8일, 본인연차사용 7일

- ✓ 장기휴가, 휴직, 재직전출, 파견 등으로 안식년 휴가 미 사용시는 복귀/복직 후 1년 이내 사용
- ✓ 연차가 부족한 경우 안식년 휴가 사용 못함
(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 부여된 연차휴가일수 내 사용 가능)

장기근속 보로금

- > 금액: 10년 (100만원), 20/30년 (150만원)
- > 공로패: 장기근속 공로패 지급

4/4분기 서부권역 지부장회의
서부권 지부장 한자리에



2019년 12월3일(화) 익산지부실에서 4/4분기 서부권역(권역장 노용환)회의를 개최하였다. 권역회의는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한, 각 지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전주시사 김장 봉사활동



전주시부(지부장 윤기성)와 전주시사(지사장 이경석)는 매년 사회공헌 활동으로 시행하는 김장봉사활동을 전주시사 임직원 10여명이 추진하였다. 본 행사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복지관에서 실시 하였으며 전주시부 전.현직 여성부장과 여성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뜻 깊은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전주시사 한라산 정상에 올라



전주시부(지부장 윤기성)는 지난 10월 추계 체육행사 주간을 활용하여 휴일 근무자 및 자율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한라산 정상 등반을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전주시사 가족들은 참여한 인원 중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정상에 올라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북고객본부 사랑의 봉사단 봉사활동



2019년 12월9일(월)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전북고객본부 “사랑의 봉사단”은 전주민들레학교 10여명의 학생과 함께하는 순례길 걷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성명서



KT CEO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종사원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

KT 차기 CEO 선임 절차가 금일부터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KT는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추신경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부적절한 인사가 KT CEO로 선임된다면 KT의 존망은 물론 국민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KT노동조합은 우리에게 부여된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깊이 고려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CEO의 조건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치권 로비를 통해 KT의 CEO가 되려는 자와 CEO직을 경력관리와 치부수단으로 생각하는 낙하산 인사는 결단코 거부한다.

공기업 시절부터, 민영화된 지금까지 KT는 정치권의 외압과 영향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 리스크에 시달려왔다. 외압에 의해 선임된 CEO는 KT의 발전 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는 KT 고유의 기업문화를 부정하고 낙하산 부대를 대거 영입하여 회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이제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만약 정권이 과거와 같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종사원의 고용안정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차기 CEO는 단기 성과보다는 혁신을 통한 질적 성장,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해 KT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구성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셋째, 국민기업 KT에 애정과 이해가 높은 ICT 전문가가 선임되어야 한다.

차기 CEO는 무엇보다 KT를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정신이 있어야 한다. KT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속속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보다 적합한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ICT 기술변화 속에서 KT 가족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반드시 ICT 전문성과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CEO여야만 KT 전 구성원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다. KT노동조합은 지배구조위원회와 이사회가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KT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자신들에게 부여된 소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약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대와 달리 과거의 약속을 반복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KT노동조합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민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와 힘을 모아 결사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11월 6일

KT노동조합

활기찬
전북 만들기

1. 직장 내 “올바른 호칭” 사용으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어 봅시다.
2.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인사하면 “반갑게 맞아” 줍시다.

회사 내에서는 직급을 사용해 호칭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호칭. 부르는 사람도 불리는 사람도 기본 좋게 사용합니다.

- “야!” 는 호칭이 아닙니다. 사내에서는 직급을 사용해 호칭을 불러줍니다.
- “~~했냐?” 반말이 친근함의 표현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해 줍시다.
- 선배, 동료, 후배, 그룹사/협력사 직원에게도 존중의 높임말을 사용합니다.(Single kt의 시작)



인사는 직장생활의 예절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이며 서로 좋은 인상을 주고 받는 무기입니다.

인사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본 사람이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 인사를 할 때는 상대의 눈을 보고,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 엘리베이터 안, 갑자기 마주친 경우, 조용한 분위기 속, 자주 마주친 경우 간단한 목례로 예의를 나타냅니다.
- 퇴근 시에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등 인사말로 마무리 합니다.



기본과 원칙

인사와 호칭사용 습관화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퀴즈 풀고



강백호 선수 사인볼 받자

추첨을 통해 강백호 선수 등 KT위즈 야구단 선수 사인볼 10개를 선물합니다.

보내실 곳 (E-MAIL) : kttu22@kt.com 기한: 12월20일 메일수신

1. 우리 KT에서 직원 애.경사시 사용할 수 있게 상조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다운플랜 상조 가입비(12,500원/120개월) 지원제도이다. 다운플랜 상조 서비스 신청 가능한 전화번호는?

① 1544-1555 ② 1566-1555 ③ 1577-1555 ④ 2580-2580

2. 2020년 “활기찬 전북 만들기”에 필요한 요소 3가지가 아닌 것은?

① 직장 내 올바른 호칭 사용하기 ② 먼저 인사하기
③ 인사하면 반갑게 맞아주기 ④ 후배가 먼저 인사하기